



Analyst 유승우 · 02-3773-9180 · yswbest@sk.com



- ✓ Vale 의 32 만~36.5 만 DWT 급 VLOC 30 척 발주 소식
- ✓ Fleet 과 Orderbook 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중국
- ✓ 따라서 지나친 수주 기대감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

VLOC 수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위험할 수 있다

최근 대한민국 조선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. 브라질 최대 채광기업인 Vale 가 선대 개편 차원에서 32 만~36.5 만 DWT 급 VLOC 를 최소 30 척을 새로 짓기로 했다는 보도였다. 선가는 대당 7,500 만 달러로 추산된다. 30 척 모두를 대한민국 조선사가 수주하면 좋겠다는 바람에 VLOC 의 역사와 현재를 검토해 봤다. 먼저 Capesize 벌커의 선대를 살펴보니 중국 조선소가 인도한 선박은 104 척이고 한국은 36 척이었다. 그 중에서 VLOC 만 따로 떼어내어 보면 중국이 30 척, 한국이 3 척을 인도했다. 중국이 50%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온 것이다. 수주잔고 기준으로는 Capesize 벌커 전체 잔고에서 한국은 5 척만 지녔지만 중국 조선소는 81 척의 잔고를 기록하고 있었다. 그 중 VLOC 는 중국 32 척, 한국은 3 척이다. 수주잔고의 70% 이상이 중국 조선소의 몫인 것이다. 그동안 중국이 벌커 시장을 잠식해온 만큼 잔고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었다. 물론 이번 Vale 발주 물량에 대한 용선 계약 상대가 플라리스쉬핑, 팬오션, SK 해운 등 국내사가 5 개이며 중국 업체는 2 개라는 점에서 한국 조선소의 수주를 점칠 수도 있다. 그러나 최근 고부가가치 선종인 대형 컨테이너선 관련 소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가져온 역효과가 컸던 것을 볼 때 이번 VLOC 관련 소식도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.

Vale 가 VLOC 30 척을 발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짐

초대형 광석운반선 대규모 발주 임박... 조선업계 '반색'
 기사입력 2017/09/17 06:05 송고

브라질 발레, 30척 선조 계획...현대중공업 수주 기대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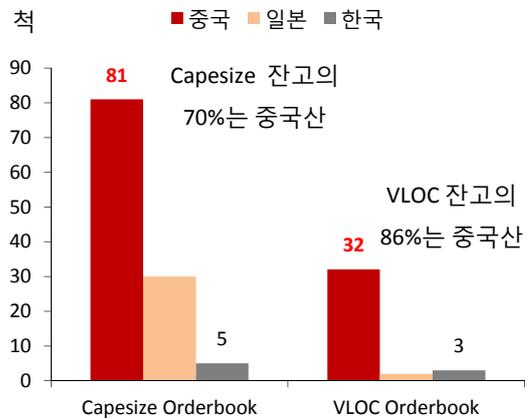
(서울=연합뉴스) 윤보람 기자 = 국내 해운사들이 새 선박 건조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초대형 광석운반선(VLOC) 용선 입찰을 따내면서 조선업체들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.

17일 업계와 조선·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채광기업 '발레(Vale)'는 선대 개편 차원에서 32만~36만5천DWT(재화중량톤수)급 VLOC 최소 30척을 새로 짓기로 하고 최근 해운사 7곳과 장기운송계약(COAs)을 맺었다.

계약 상대는 플라리스쉬핑, 팬오션 [026670], 에이치라인해운, SK해운, 대한해운 [005880] 등 국내 업체 5곳과 ICBC FL, 코스코 등 중국 업체 2곳이며, 계약 기간은 20~25년이다.

각 선사들의 선박 발주 예상 규모는 플라리스쉬핑 10척, ICBC FL 6척, 코스코 4척, 팬오션 4척, 에이치라인 2척, SK해운 2척, 대한해운 2척으로 알려졌다.

Capesize 이상 벌커의 수주잔고는 대부분 중국산임



자료 : 연합뉴스

자료 : Clarksons Research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